



# 충남 전통시장의 또 하나의 기회,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이상준 \_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1. 고령화시대, 전통시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 1) 고령화시대 진입과 전통시장의 쇠퇴

저출산·고령화사회<sup>1)</sup>로 진입하면서, 도시와 농촌지역에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심지 공동화로 인한 전통시장의 쇠퇴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통시장은 대부분 도시 및 농촌지역의 중심지에 입지하며 지역의 인구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쇠퇴는 당연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단순한 판매장소가 아닌,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거점이다. 더불어 사람들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해 지역문화를 형성·발전시켜나가는 커뮤니티 거점이다. 이러한 전통시장 쇠퇴는 단순한 경제시설의 쇠퇴가 아닌 지역 전체의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이에 전통시장 활성화는 국가적 관심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1) 김은경 외(2015), 저출산·고령화 시대 경기도 산업정책방향 연구, 경기연구원, p.3.

## 2) 청년계층과 청년문화의 도입만이 대안인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낙후된 시설환경과 후진적인 경영시스템을 개선하고 상인들의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개선에서는 분명한 효과를 얻고 있으나 경영시스템이나 상인 의식 제고에 있어서는 한계점도 보이고 있다.

최근 전통시장에 외부사람, 특히 청년계층 등을 대상으로 청년창업, 청년예술인 도입 등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이미지와 환경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도시권'에 입지한 전통시장에서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청년계층을 모든 전통시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 청년계층의 도입만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대안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의 긍정이라고 할 것이다.

충청남도는 대부분 농촌형 전통시장으로 이러한 방식만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청년계층을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상인의 고령화<sup>2)</sup>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소비자도 고령화되고 있다. 지역 전체가 고령화되고 있는데, 청년계층의 도입만을 통한 활성화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 3) 지역 대다수인 고령자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

전통시장의 고령화, 소비자의 고령화는 분명한 화두를 던진다. 과연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고령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현재로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일부 전통시장에서 고령자를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카트<sup>3)</sup>, 휴게시설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 그 수준이 매우 미미하며, 엄밀하게 말해서 고령자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전통시장이 전통적 상업시설이라는 인식, 고령자 이용 상업시설이라는 인식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목적 계층이 설정되지 못하고 지역 인구 전체의 유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4) 지역인구특성을 고려한 전통시장 활성화 필요

전통시장은 지역 인구특성을 고려한 활성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 인구가 젊으면 젊은 전통시장이고, 지역 인구가 고령화되면 고령화된 전통시장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쇠퇴를 막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활성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2) 행복한 가게 연구소(2015), 전통시장 상점주 상인 연령, [http://blog.naver.com/help\\_happy](http://blog.naver.com/help_happy).

3) 박상익·서동우(2015), 한국 전통시장론, 한국전자도서출판, p. 172.



현재 수원시와 전주시, 청주시 등 도시지역 전통시장과 같이 청년계층 확보가 용이한 도시지역에서는 청년계층 수요에 부합되는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역 전통시장에서는 고령자를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거나 이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처럼 적합한 시설이나 지원프로그램 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 2.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방향 및 사례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이란 규정된 명칭은 아니며 고령자의 삶과 관련된 정주·문화·사회 등에서 편안하고 편리한 ‘커뮤니티 거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사회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고려한 상점가’ 조성을 상점가 활성화의 화두로 제시하고 고령자 친화형 상점가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실제 상점가별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 1) 고령자 친화형 상점가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 중앙정부 및 상점가연합회 고령자 지원기준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 및 전국상점가진흥조합연합회(全国商店街振興組合連合会) 주도로 고령자가 안전하고 안심하게 생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점가를 중심으로 한 콤팩트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고령자의 쇼핑확대 및 상점가 매출증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까지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고령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1]과 같이 개별 상점가 및 점포 등에서 고령자를 위한 시설안전, 서비스, 점포진열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방법을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시설안전과 관련해서는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고령자를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도폭 확보, 단차 해소, 휴게시설 확충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배달서비스와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점포진열에서는 고령자를 고려한 내부 진열방식이나 시설물 설치 방안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 지자체 및 상점가 단위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기준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된 일본에서는 중앙정부 및 상점가 진흥조합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상점가별로 규

[표 1] 일본상점가 고령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대책

구분	내용
시설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자전거 방치, 매대 설치를 없애고, 자전거 이용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도폭 확보 등</li> <li>■ 노인이 끄는 카트(장바구니 등)를 고려한 단차 해소</li> <li>■ 알기쉬운 장소에 안내판과 화장실 설치, 벤치와 휴게소 설치 등</li> </ul>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료 구입 상품에 대한 배달택배서비스 실시</li> <li>■ 쇼핑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쇼핑 대행서비스 실시</li> <li>■ 노인이 모이는 장소에 찾아가는 이동판매서비스 실시</li> </ul>
점포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력이 나쁜 노인을 위해, 조명을 밝게 하고 제품을 쉽게 볼 수 있게 진열, 큰 글자로 유통기한 등 표시</li> <li>■ 가족이 적은 노인을 고려한 소용량, 소액제품 판매</li> <li>■ 신상품에 대한 구두 설명, 중요한 주의사항은 확대 복사 등</li> </ul>

출처 : J-NET21(<http://j-net21.smrj.go.jp>), 특집 상점가 인터뷰(Q439.商店街施設のバリアフリー化と高齢者対策についてはどのようなものがあり□か?), 2014.

약이나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마네현 마쓰에시의 마쓰에텐진읍상점가(松江天神町商店街)<sup>4)</sup>를 들 수 있다. 이 상점가는 중심시가지의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대응한 고령자 친화형 상점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고령자 중심의 살기 좋은 모델을 조성하기 위한 ‘天神町まちづくり委員会(텐진읍도시마을만들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마쓰에텐진읍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교류의 장 조성, 둘째, 주변 사찰과 연계성 강화, 셋째, 고령자를 고려한 상업환경 조성을 계획 수립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거리만들기’협정이 제정·운영되었다.<sup>5)</sup>

[표 2] 마쓰에텐진읍상점가(松江天神町商店街)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 지원 방안

구분	내용
교류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 점포 활용 고령자 모임공간 조성(도시 복지와 시책 연계)</li> <li>■ 시설 운영 등을 위한 고령자 협의체(후레아이 플라자 협의회) 구성</li> </ul>
주변 사찰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사찰을 활용한 제례(おかげ天神(지장보살을 모신 사찰))</li> </ul>
고령자 상업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의 날 제정 운영, 고령자용 상업시설물 설치 및 개선 등</li> </ul>

출처: 松江・米子・境港合宿巡検報告書, 2001. <http://soc1.h.kobe-u.ac.jp>

4) 松江天神町商店街, 2015. <http://www2.crosstalk.or.jp>

松江天神町商店街のお年寄りに優しいまちづくり, 2015. <http://www.oirak.jp>

5) 이상준(2012), 지방중소도시 전통시장 유형별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4.



## 2) 고령자 친화형 상점가 조성 사례

### ■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고령자 친화형 상점가 조성 사례

다양한 상점가에서 고령자를 위한 도시락배달, 만남카드 제작·활용(고령자를 위한 가맹점이나 할인, 경품 행사 활용) 등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미에현 구와나시의 데라마치도리상점가(寺町通り商店街)<sup>6)</sup>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와 상점가, 상인 간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한 소비활동 전개를 목적으로 한 만남카드를 제작·활용하고 있다. 만남카드는 고령자 전용 카드로 상점가 내 가맹점에 대한 할인이나 경품 행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시가현 나가하마시의 키노모토북국가도상가(きのもと北国街道商店街)<sup>7)</sup>에서는 “안심도시 키노모토” 구현을 목표로, 상점가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조성한 챌린지 스푼을 활용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 “식사 공간 제공 서비스” 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전과 고령자 중심의 지역 커뮤니티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 ■ 고령자 전용시설 조성을 통한 고령자 친화형 상점가 조성 사례

고령자 맞춤형 소규모 슈퍼마켓(핵점포 등) 설치, 지역 공공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복지센터 등) 등을 상점가 내부에 조성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 전용복지시설 조성은, 대표적으로 시마네현 마쓰에텐진읍상점가(松江天神町商店街)<sup>8)</sup>를 들 수 있다. 지역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휴식공간(まめな館)”과 “보건의료복합커뮤니티시설(いっぷく亭)” 설치, “고령자 공동주거시설(安心ハウス)”를 운영<sup>9)</sup>하고 있다.

야마구치 현 호후시 텐진초긴자상가(天神町銀座商店街)<sup>10)</sup>에서 상점가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고령자를 위한 방문과 숙박을 결합한 소규모 다기능 노



〈그림 1〉 마쓰에텐진읍상점가 まめな館 전경  
출처: 松江天神町商店街, 2015

6) mizuho, 2015, <http://www.mizuho-ir.co.jp/publication/column/2010/1221.html>

7) 협동조합 키노모토북국가도상가(きのもと北国街道商店街), 2015, <http://www.chuokai-shiga.or.jp>

8) 松江天神町商店街, 2015, <http://www2.crossstalk.or.jp>

松江天神町商店街のお年寄りに優しいまちづくり, 2015, <http://www.oirak.jp>

이상준(2012), 전계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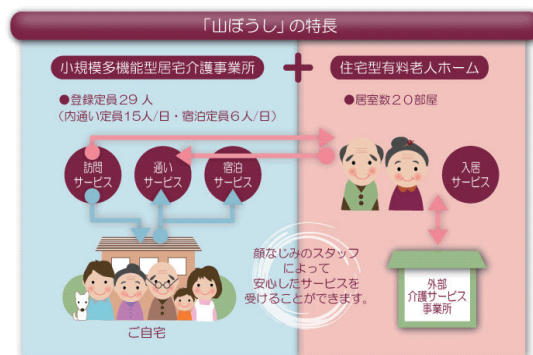
9) 이상준(2012), 전계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4.

10) mizuho, 2015, <http://www.mizuho-ir.co.jp/publication/column/2010/1221.html>

인유료 공동홈(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 有料老人ホーム)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 포괄지원센터 등도 병행 운영함으로써, 상점가 내부에 고령자를 직접 끌어들이며, 상점가에 대한 경제적 활성화 및 고령자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전용상업시설의 경우, 니가타현 산조시 산조중앙상가(三条中央商店街)<sup>11)</sup>는 고령자의 편안한 식품 쇼핑을 위한 농산물 전용 소규모 슈퍼마켓을 상점가 내부에 설치하고, 고령자의 의견을 반영한 소품종·소량 판매를 전개하고 있다.

홋카이도 오비히로시의 오비전신도리상점가(帯広電信通り商店街)<sup>12)</sup>에서는 지역 장애인 복지단체 등과 협력하여, “노인·장애자와 협동·공생하는 상가” 조성을 위한 “복지 스위트로드 형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점가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커뮤니티 숍(ミナミナ)”, “빈곤생활자 지원 시설(心音)” 등 문화·복지시설이나, “커뮤니티 반찬가게(惣菜・ごはん屋でんしん)” 창업지원시설 등을 다양하게 설치·운영하여, 고령자를 단순한 소비자주체가 아닌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핵심주체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2〉 텐진초긴자상가

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 有料老人ホーム 개념도

출처: 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事業所, 2015



〈그림 3〉 오비전신도리상점가 커뮤니티 숍

출처: 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事業所, 2015

### 3. 충남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활성화 조성을 위한 제안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고령화수준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충남 전통시장은 일부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농촌형 전통시장으로 고령화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충남 전통시장은 고령자를 고려한, 고령자에게 친밀한 전통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11) mizuho, 2015, <http://www.mizuho-ir.co.jp/publication/column/2010/1221.html>

12) 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事業所, 2015, <http://www.syoutengai-shien.com>





## 1)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남도 자체적인 기준과 전통시장별 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충남도 자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가 추구하는 고령자 지원정책 등과 연계하여 충남도 전통시장이 추구하는 고령자 친화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고령자의 “생활·안전, 문화·복지, 상업·경제”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전문가, 전통시장 상인 등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의 과정을 추진하고 필요 시 전담 T/F팀의 구성이나 관련연구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전통시장별 맞춤형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전통시장에 맞는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 전략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지역 인구가 비교적 많고 도시화 및 활성화수준이 높은 전통시장의 경우 빈집포 등을 활용하여 고령자를 위한 문화·복지시설(예, 도시락배달 및 식사제공 커뮤니티숍, 고령자 전용 휴게센터 등)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지역 인구가 적고 도시화 및 활성화수준이 낮은 전통시장의 경우 고령자를 위한 공동생활홈, 고령자 복지센터 등 고령자가 전통시장 내 거주하면서 소비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통으로 전통시장별로 지역 내 고령자를 전통시장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한 찾아가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를 위한 상품배달서비스, 음식배달서비스, 고령자 전용 축제 및 이벤트 개최, 고령자 전용 할인 행사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2)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남도와 전통시장별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 전략을 활용하여, 충남도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중앙정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키워드는 “특성화”, “맞춤형”으로, 충남도에서 젊은계층 및 젊은문화 적용사업과 연계하여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충남도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충남도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비전을 고려하여 행·재정적으로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단계적 방향과 전략, 세부추진 과제 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충남도 내 전통시장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의향조사를 통해,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한 전통시장을 발굴하고, 추진 유형(예, 도시형태·도시권, 농촌형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유형별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1~2개소 정도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사업추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후 운영·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완결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3) 다양한 중앙부처사업의 연계를 통한 규모화 · 광역화를 도모한다.

우리는 전통시장 활성화는 상업 · 경제, 혹은 문화만을 적용해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년 간의 사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중앙부처사업의 연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소기업청 주도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설개선과 젊은계층 유입 도모, 상인역량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보건복지부(고령자친화형기업 등) 등 다양한 중앙부처 관련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자체의 규모화 · 광역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충남도 차원에서 선행적으로 보건(지)소 신축, 문화복지센터 조성, 노인회관 등의 신축에 있어 우선적으로 전통시장 내 빈점포 및 공터를 활용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및 지자체 단위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인지도나 추진이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충남도 차원에서 국가 단위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들이 전통시장 내부에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이라는 목적하에 지원되도록 행 ·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은경 외(2015), 저출산·고령화 시대 경기도 산업정책방향 연구, 경기연구원  
 박상익·서동우(2015), 한국 전통시장론, 한국전자도서출판  
 이상준(2012), 지방중소도시 전통시장 유형별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상진(2015), 일본의 신고령세대, 새로운 시장을 연다, Kotra  
 행복한 가게 연구소(2015), 전통시장 상점주 상인 연령, [http://blog.naver.com/help\\_happy](http://blog.naver.com/help_happy)  
 J-NET21(<http://j-net21.smrj.go.jp>), 특집 상점가 인터뷰  
 mizuho, 2015, <http://www.mizuho-ir.co.jp/publication/column/2010/1221.html>  
 松江天神町商店街, 2015, <http://www2.crosstalk.or.jp>  
 松江天神町商店街のお年寄りに優しいまちづくり, 2015, <http://www.oirak.jp>  
 きのもと北国街道商店街, 2015, <http://www.chuokai-shiga.or.jp>  
 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事業所, 2015, <http://www.syoutengai-shien.com>